

■ 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 무엇을 담았나

# 피해 사실·희생자 신원 등 구체화 진일보

### “2003년 펴낸 진상보고서 뼈대 위에 살 붙이는 일” 희생자 1만 4442명 ‘본적지’서 ‘거주지’로 재분류 6·25 당시 탈옥수 명부 등 신규 사료 발굴·규명도

‘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에 대해 발간을 맡은 제주4·3평화재단은 16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뼈대라면 추가진상보고서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피해 사실과 희생자의 신원 등을 구체화시켜 뼈와 살이 있는 실체가 있는 역사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4·3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정된 1만4442명을 기존

‘본적지’ 중심에서 ‘당시 거주지’ 중심으로 재분류한 점이다. 본적지로 분류했을 때는 피해지역과 사건 희생자가 서로 갈리는 등 피해 실태 파악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재분류 결과 가장 피해가 많았던 노형리 희생자는 종전 544명에서 538명으로, 북촌리는 418명에서 446명으로, 가시리는 407명에서 421

명으로 수치가 재조정됐다. 아울러 수형인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말고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활용하지 못한 ‘6·25 당시 탈옥수 명부’에 기재된 4·3연루자를 검색, 희생자들의 기본 신상을 밝혀냈다. 특히 경인지역(서대문·마포·인천·부천)과 호남지역(목포·광주·전주) 형무소의 경우는 ▷형무소 옥사 ▷한국전쟁 직후 실종·월북 ▷만기출소자 ▷병보석 석방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했으며, 지난해 1월 17일 4·3수형 생존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도 추가했다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육계 실태에 대해서는 총 93개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의 실명 및 교육시설 피해 상황을 도표로 정리했다. 이 밖에도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과 1950년 예비검속, 군·경·우익단체 등도 추가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제시했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는 “제1권에 다루지 못했던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 중부권과 영남권 형무소의 수형인 문제, 재외동포와 종교계 피해 실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제 2권, 3권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신임 제주해경청장에 김성종 경무관

제주출신 김도준 치안감 승진



국 형사계장·장의 성과담당관, 제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해양경찰청 외사과장 등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20일자로 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등 지휘관급 인사를 단행해 신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김성종(48·사진) 해경청 국제협력관(경무관)을 내정했다.

김 신임 제주해경청장은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2005년 경정 특채로 해경에 입문했다. 이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

제주 출신 김도준(58) 해경청 장비기술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발탁됐으며, 여인태 현 제주해경청장은 남해지방해경청 안전총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상민기자

## 안전조치 소홀로 선원 숨지게 한 선장 징역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원에게 선박 정비 작업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호 선장 김모(5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귀포 해

상에서 A호 추진기에 이상 현상을 발견한 뒤 피해자인 선원 B(48)씨에게 추진기를 확인해보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B씨는 잠수 작업 도중 실종돼 사실상 숨졌다.

B씨는 전문 잠수사가 아니어서 김씨는 B씨를 상대로 안전교육과 잠수복 착용, 연락줄 연결 등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했지만 이행치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 “수족관 시즈히터 화재사고 주의하세요”

최근 3년간 도내서 12건 발생

횃집 등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수족관 시즈히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시즈히터에 의한 화재는 총 12건 발생했으며,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오전 1시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시장 수산물 점포와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쯤 애월읍 고내리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모두 수족관에 사용하는 시즈히터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시즈히터는 금속보호관에 전열선이 내장돼 전기로 물을 데우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족관 내 수온 조절을 위해 횃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즈히터에 의한 화재는 물의 양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물통의 물 수위가 낮아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김현석기자

## 1억원대 마스크 판매사기 공범 2명 구속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이용... 피해자만 총 75명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A(38)씨와 B(20)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경부터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 게시판을 ‘KF94 마스크 판매 1매 2500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구매대금을 선입금 받는

방식으로 총 75명의 피해자에게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의 현금 마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적발된 제주지역 마스크 관련 위법 행위는 판매 사기 9건, 매점매석 1건, 유통 질서문란 2건 등 총 12건이다. 김현석기자



본래 모습 되찾는 제주시청사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된 제주시청사 본관에서 16일 전광판 철거 및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 제주에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 진료센터

도, 제주대병원에 “응급실 격리 진료구역 마련” 명령  
한라병원은 자신 신청... 응급실 보호·골든타임 사수

제주지역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의 응급환자를 전담 진료하는 의료센터가 생긴다.

16일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지사 직권으로 제주대병원 측에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니 응급실 내에 격리 진료구역을 마련하

라”고 명령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 정책에 필요할 때,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폐쇄와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현재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감염병 격리 진료 구역이 없다. 우리가 흔히 감염병 격리 진료 구역으로 알고 있는 음압 병상(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상)은 모두 응급실 밖 별도의 병동에 마련돼 있다.

응급실에 격리 진료 구역이 없다면 응급실을 찾은 중증 환자가 나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이 폐쇄되거나, 의료진이 격리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잦았다. 또 응급실이 폐쇄되면 정작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생기면 이런 우려를 덜 수 있다. 이 센터는 응급실 밖에 있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먼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라 환자를 나눠 기침·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이는 중증환자만 응급실 내 격리 진료구역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격리 진료구역에 배치된 응급실 의료진은 방호복을 착용하며, 정부는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증상이 경미하면 이 격리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제주대병원 뿐만 아니라 한라병원에도 생길 전망이다. 한라병원은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주 스스로 센터 지정을 신청했다.

한라병원 관계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응급실 내 5개 이상 격리 병상 확보 계획을 세우는 등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격벽을 세워 격리 진료구역을 만들 예정”이라며 “오는 19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나머지 환자들을 서로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도 지정돼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 **관주요면 시비용** 갈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제주도정 소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2

■ 2020년 제1기 제주여성 멘버십 기본교육 수강생 모집

-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0. 4. 17. ~ 6. 3.
  - 교육시간: 매주 수, 금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교육대상: 도내 거주 여성 30명
  - 수강료: 무료
  - 교육내용
    - 제주신화, 제주4·3, 미래제주 여성상, 여성인권 등 인문학적 소양
    - 발표력 및 리더십 마인드 향상 등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 주민자치 운영사례, 지역공동체 실태 등 여성의 사회참여 방안 등
- \* 관련 교육내용 이수시 '주민자치학교' 이수자격 부여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19. 3. 17. ~ 3. 31.
- 모집방법: 홈페이지(http://swcenter.jeju.go.kr)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710-4202
- \*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코로나19 극복 도민 3대 실천 수칙

-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며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 이웃, 제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제주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신뢰 구축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축산물 작업장 위생검사 실시

- 도내 축산물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에서 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고기에 대하여 미생물 오염 여부 등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3.16.(월)부터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축산물작업장 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 인·허가부서에 통보하며, 인·허가기관인 행정시에서는 위생관리기준 및 시설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문의: 064-710-8572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3개월
- 용역비/계약방식: 14억원/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모집인원: 21명
- 평가위원 수(7명)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 모집인원 미달시 부족인원은 자체적으로 선정·명부 작성

○ 응모자격: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타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의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대학에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4.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5.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분야) 국제교류·협력, 관광, 1차산업, IT, BT, 경제, 의료·보건, 모인,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역할: 용역 임할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 모집기간 및 접수
  - 모집기간: 2020. 3. 11. (수)09:00-3.20. (금)18:00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yssko@korea.kr), 팩스(064-710-2239)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비전팀 ☎064-710-2242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안각서(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입법·고시·공고」란 공고문 참조 (공고번호: 제2020-841호)